

#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9 ~ 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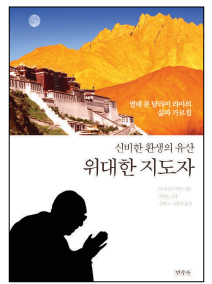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리셋	월호	마음의숲
2	백일법문(개정증보판)	성철	장경각	7	죽장수필	윤서주평	불광출판사
3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비 신행수기 공부 달인전	모과나무	8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 4인	운주사
4	사찰의 비밀	자연	담앤북스	9	맑은 마음 밝은 마음	김재중	웅화
5	함미 없이 하는 도리(한영합본)	대행	한아름출판사	10	질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원철	불광출판사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 티베트 불교수행 3천년의 생생한 전승과 실천

### 위대한 지도자

라마 글렌 멀린 지음 | 김영로 · 조원희 옮김  
민족사 펴냄 | 2만3천5백원



달라이 라마(Dalai Lama)는 큰 바다를 뜻하는 '달라이'와 영적인 스승을 뜻하는 '라마'가 합쳐진 말로, '바다와 같이 넓고 큰 덕의 소유자인 스승'을 뜻하며, 티베트불교의 겔루크파 법왕의 호칭이다. 책은 달라이 라마 14인의 삶과 가르침을 엮었다.

장 빠른 길 중의 하나가 '금강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금강승의 가르침 대부분이 이 책에 들어있다.

저자는 캐나다 출신으로 1972년부터 12년간 티베트 불교 4대 종파의 스승 35명에게서 불교 교학과 수행을 지도받은 글렌 멀린(사진)이다. <산티데바의 행복수업(임보리행문)>, <죽음수업>의 저자 김영로 씨와 <위대한 길에서 마음 닦기>, <사자의 서> 등을 번역한 조원희 씨가 우리말로 옮겼다.

현재까지 출판된 책 중 달라이 라마에 관련된 책은 80종에 이르지만 14대 달라이 라마(법명 · 텐진 가초)의 관한 책이 대부분으로, 제1대 달라이 라마에서 현재 제14대 달라이 라마까지, 티베트는 불교의 지도자 14인의 생애와 법문을 소개한 책은 이번 책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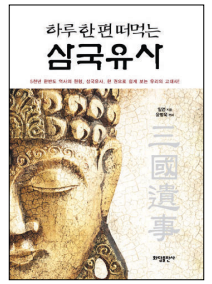
책은 시간적으로는 약 3천년에 걸친 이야기이며, 공간적으로는 인도, 티베트, 몽골 등에서 일어난 것으로, 관세음보살의 화현인 달라이 라마의 74번의 환생과 그들의 가르침에 관한 것이다. 환생 법맥으로 이어지는 달라이 라마의 신비스러운 계승 방법을 비롯해 역대 달라이 라마 14인의 탄생과 생애, 가르침을 망라했다.

로종(Lojong)수행, 즉 '마음바꾸기 수행' 등을 비롯해 티베트 불교 금강승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대부분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다.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가

### 삼국유사의 재구성

#### 하루 한 편 떠먹는 삼국유사

일연 지음 | 윤병욱 편저  
화담출판사 펴냄 | 1만5천원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를 제1부 '삼국유사 이야기 편'으로 재편집하여 청소년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

제2부 '삼국유사 정리 편'과 제3부 '삼국유사 심화편'을 함께 하여 <삼국유사>의 완벽한 이해를 돕고 있다.

현재의 인류가 이룩한 유 · 무형의 총체적 인프라는 '기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 볼 수 있다. 인류가 문자를 발명하여 자신들의 생활상과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50만 년 인류사에서 길게 잡아 1만 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수십만 년을 두고 발생한 인류 역사는 어떻게 후대에 전해졌을까?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이었다. 이를 흔히 '신화와 전설'이라고 한다. 이 신화와 전설은 각 민족마다 고유하게 전승되어 오

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럽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고, 중국에는 '삼황오제와 요순임금'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단군신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화와 전설 역시 찬란한 문명을 가꾸고 문자를 활용한 민족에게만 전해지고, 그렇지 못한 민족들에게는 점차 소멸되어 잊히는 실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단군신화를 가장 먼저 대중에게 소개한 <삼국유사>는 암흑 같았던 우리나라의 상고 시대 역사를 밝힌 그야말로 등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달라이 라마 14인의 삶 · 가르침 망라 티베트 불교 금강승 중요 가르침 담겨

역사에서 담당해온 역할과 티베트 불교수행의 생생한 전승과 실천과정이 담겨있다.

티베트에는 방대한 문헌이 있는데, 이중 다수는 산스크리트 경전을 티베트어로 번역한 것들과 이들에 대한 논서들이다. 그러나 더 인기 있는 것은 티베트 고유의 저술들이다. 이들 중 다수는 위대한 스승들과 수행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나머지 것들은 개별 라마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간결하지만 함축적인 조언을 담고 있는 저작으로 수는 많지 않다.

이 책에서 독자들은 달라이 라마와 관련

된 이런 종류의 글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저자 자신을 포함하여 각 달라이 라마의 삶에 대한 이야기, 역대 달라이 라마가 남긴 글들이나 가르침의 본보기들이 담겨져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티베트의 종교적, 정치적인 삶에 대한 과거 달라이 라마들의 공헌을 조명하고, 또 일반 티베트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종류의 글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저자 라마 글렌 멀린(Glenn Mullin)은 캐나다 퀘벡 출신으로 대학 졸업 직후인 1972년부터 1984년까지 약 12년간 티베트불교 4대 종파의 스승 35명에게서 불교 교학과 수행을 지도 받았다. 또한 다람살라에서 20년 동안 달라이 라마와 그의 두 분의 스승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스승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특히 밀교는 달라이 라마 존자의 스승인 깁제 링 도르제창 스님과 깁제 티장 도르제창 스님에게 전수받았다. <열네 분의 달라이 라마(본서)>, <여성 부처님들> 등 40여 권의 역저서가 있다. 티베트와 관련한 각종 영화 제작에 자문 역할을 하기도 했다. 1년에 여섯 달 이상을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불교 수행을 가르쳐 왔으며, 한국에서는 주로 서울 향천선원에서 지도하고 있다.

퍼보면 다른 역사서보다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허황하다" 혹은 "이단의 설이다"라고 가차 없이 혹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삼국유사>를 좀 더 세심히 살펴보면 여기에 실린 신화와 전설, 민담과 신앙, 불교사상 등의 여러 내용이 일연 스님이 혼자 방 안에서 상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삼국유사>에는 다른 사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소중한 역사적 자료와 더불어 당시 백성들의 염원과 신화, 전설의 세계가 어우러져 있다. <삼국유사>는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민족 고유의 판타지 세계를 연출해내고 있다.

새롭게 재구성한 이번 책은 우리 조상의 기원과 역사적 애환을 되새기고, 민족의 자부심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며, 이제 이 책 한 권으로 고대의 한반도 역사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박재완 기자

## 한국불교 아름다운 기록 40년을 본다

### 월간 '불광' 40년 그 아름다운 기록

월간 불광 편집부 발행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5천원



월간 '불광' 40년, 그 아름다운 기록

근대 한국불교에서 문서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월간 <불광>이 창간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사를 정리한 <월간 '불광' 40년, 그 아름다운 기록>을 발간했다. 한국 잡지계에서도 쉽지 않은 '40년'이라는 역사 동안 한 번도 빠짐 없이 꾸준히 발행해온 <불광> 40년의 기록과 총 480권의 내용들 중 에센스만을 뽑아 한 권에 담았다.

월간 <불광>의 역사는 1974년 11월호부터 시작됐다. <불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전해 내 속의 부처님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 반야의 지혜로 세상을 밝게 비추겠다는 서원을 세운 광덕 스님에 의해 창간됐다. <불광> 창간에 담긴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불광>이 가야할 길을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발행된 책은 한국불교의 근현대사와 그 속에서 고뇌했던 광덕 스님의 모습과 <불광> 창간으로 한국 불교가 가야할 길을 제시하고자 했던 스님의 이야기를 가장 인터뷰 '빛으로 온 그대, 광덕 스님'을 통해 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불광>의 지난 40년을 시대별로 구분했다. 창간부터 1979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단위로 <불광>을 정리해 시대적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의 <불광>은 다른 잡지들이 해보지 못한 교리문답이나 포교전략 등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신기도 하고 경전을 현대적으로 풀이해서 연재하기도 했다. 이런 기획들은 뒤에 창간된 다른 잡지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불교 잡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길잡이가 되었다.

<불광>은 1980년대부터 조금씩 문화적인 성격이 돋보이다. 1990년대에 이르러 예술, 신화,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면모를 갖추게 된다. 2000년대부터 사회 회적 이슈에도 관심을 기울인 <불광>은 2010년대 전면 리뉴얼을 통해 한층 세련

된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창간 당시 13×18.7cm의 작은 사이즈였던 <불광>은 수차례 결친 표지 변화를 단행했다. 2005년, 30년 만에 한 차례 판형 조정을 거친 후 2008년 표지에 바깥쪽으로 접히는 접지를 도입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접지가 접힌 상태에서는 전면 사진이지만 접지를 펴면 목차가 드러나는 방식이다. 그리고 2012년 17.1×24.7cm로 판형을 대폭 키우고 전면 컬러를 도입하면서 <불광>은 '읽는 잡지'에서 '보는 잡지'로 변신을 꾀한다. 이런 <불광>의 외형적 변화들 역시 <월간 '불광' 40년, 그 아름다운 기록>에 잘 담겨 있다.

미량 서정주, 김동리, 고은, 조정래, 정채봉, 김춘수, 도종환, 이해인 수녀 등 한국 문학을 대표

하는 문인들이 <불광>과 함께 호흡했고, 한국인 최초의 노벨 평화상 후보이자 민족 사상이자 민족사상가 함석헌, 연극배우 손숙(현정경부장관), 지식인 윤구병 등도 <불광>과 함께 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불모 석정 스님, 수안 스님과 함께 근현대 한국서단을 대표하는 일출 김충현 · 여초 김응현 형제,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안상수, 판화가 이철수 등 수많은 예술가들의 작품도 <불광>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었다. 그들의 손길을 <월간 '불광' 40년, 그 아름다운 기록>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다.

당대의 고승들과 시대의 석학들도 <불광>과 함께 했다. 성철, 서용, 고암, 경봉, 석주, 일타 스님 등 한국의 근현대불교사를 이끈 고승들의 승결과 서문각, 양주동, 이항녕, 원의법, 황수영, 이병주, 홍정식, 목정배, 고익진, 문명대 등 한국 최고의 석학들의 손길을 <불광> 40년 곳곳에 묻어 있다. 책은 이 모든 <불광>의 콘텐츠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았다.

<불광> 창간 40주년 기념 <월간 '불광' 40년, 그 아름다운 기록>은 기존 정기독자들은 물론 신규 · 재구독 독자들에게도 모두 무료로 전해질 예정이다. 또 이 책을 별도로 소장하고자 하는 독자는 일반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 맑은사람들 총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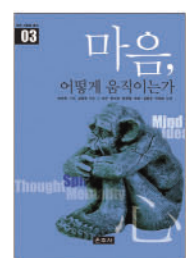
##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  
396쪽 | 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는 것인가  
권석만 외  
504쪽 | 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  
400쪽 | 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중 외  
424쪽 | 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  
348쪽 | 18,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안성두 외  
416쪽 | 20,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  
300쪽 | 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  
326쪽 | 18,000원

**학술연찬회**  
주제: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일시: 11월 29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깨달음의 정체에 대한 고찰

불교의 궁극적 지향점인 '깨달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책은 '깨달음'을 주제로 초기불교, 선불교, 불교학, 비교종교학, 상담심리 등 여러 방면에서 그 실체와 의미,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논구하고 있다.

##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 집필/신국판양장/388쪽/20,000원

